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 및 정제능력 전망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가 1995년 이르러 15,770천b/d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. 이는 1988년 수준의 1.3배(3,570천b/d)로서 연평균 3.7%씩 증가한 양이다. 반면 정제능력(상압증류)은 1988년의 15,990천b/d에서 1995년에는 17,800천b/d로 약 1,810천b/d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석유제품공급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역외로부터의 石油製品油輸入은 더욱 늘어나고 특히 中東의존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.

石油製品別 수요를 보면, 나프타가 연평균 6.8%로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그 다음이 輕油 4.7%, 제트유 3.8%, 중유(A) 3.7%, 휘발유 3.4%, 중유(C) 1.8%이다. 수요정제도 경질화되는 추세이다. 경질제품(휘발유, 나프타, 제트유, 등유, 경유)의 점유율이 1988년 73.8%에서 1995년 76.5%로 계속 경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.

國家別로는 泰國이 9.2%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,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9.1%와 필리핀의 8.0%순으로 되어 있다. 이 地域 최대 소비국인 日本의 경우 1995년 전체수요량의 28%를 차지하여 1988년의 30%보

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. 일본, 美西部 海岸地區, 中國의 수요합계는 59%를 구성하고 있다.

한편 이 地域의 정제능력(上壓蒸溜)을 보면 中國이 625천b/d, 韓國이 375천b/d, 泰國이 271b/d로서 총정제능력증가분 1,810천b/d의 70%이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. 반면 미서부해안지역의 경우 정제설비 신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이는 동 지역의 환경규제강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 東南亞지역은 대규모 수출정유시설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.

2차 정제시설확충은 接觸分解(580천b/d증가)와 接觸改質(513천b/d증가)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. 또한 최근의 석유수요가 低硫黃油, 輕質油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저유황 경질유의 최소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반면 重質연료유의 공급과잉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크다. ♣(에너지경제연구원, 에너지동향)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정제능력 전망

(단위: 천B/D)

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석유제품수요전망

(단위: 천B/D)

	1988	1995	증감률(%)
휘발유	3,270 (26.8%)	4,119 (26.1%)	3.4
나프타	957 (7.8%)	1,514 (9.6%)	6.8
제트유	812 (6.7%)	1,054 (6.7%)	3.8
등유	952 (7.8%)	1,216 (7.7%)	3.6
경유	3,019 (24.7%)	4,169 (26.4%)	4.7
연료유(A)	462 (3.8%)	596 (3.8%)	3.7
연료유(C)	2,734 (22.4%)	3,103 (19.7%)	1.8
計	12,206(100.0%)	15,771(100.0%)	3.7

	1988	1995	증감률(%)
상압증류	15,993	17,804	+11.3
감압증류	5,608	7,137	+27.3
등·경유 탈황	3,119	3,740	+19.9
접촉개질	1,780	2,293	+28.8
접촉분해(FCC)	2,459	3,039	+23.6
수소화분해	842	1,066	+26.6
열분해	513	616	+20.1
간접탈황	1,171	1,188	+15
직접탈황	535	672	+25.6
Coking	756	833	+10.2
Alkylation	263	297	+12.9